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문

거창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단의 내륙 중심에 위치한 산악 지역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경남, 경북, 전북)에 접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임에도, 기존의 88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최근 개발의 중심축에서 떨어져 낙후되고, 국가나 도의 전략적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산자수려한 우리 거창은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교육도시의 중심축으로 훌륭한 인적자원도 풍부하였으나, 최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2차 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웰빙 시대 청정지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창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 등이 물류비용 과다소요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발전 잠재력을 저해하는 것 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교통시설의 낙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상 및 항공교통은 물론 철도시설도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로사정은 1개의 고속도로와 4개 노선의 일반국도가 인근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나, 현재 어느 것 하나 4차선으로 확장된 것이 없어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며,

우리 지역 물류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급경사, 급커브 등 선형이 좋지 않아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률을 자랑하는 마의 도로라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의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물류비용 과다소요에 따른 최대의 직·간접 피해자인 7만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은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발전을 최단시간 내 앞당길 수 있는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 착공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동서로 연결되는 88고속도로 중 우리 거창지역이 우선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인적 물적 수송과 유통에 절대적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우리 거창구간은 구조상 취약구간인 턴키구간으로 설계도 되지 않고 조기 착공이 기약도 명분도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병술년 새해 거창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 불편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7만 군민이 가질 수 있도록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연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으로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재고(再考)와 선처를 바랍니다.

2006년 1월 18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